

지역 매아리

김제지평선학당, 학부모 입시교실 개최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지난 27일 자녀의 진로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위해 제6회 학부모 입시교실을 지평선 학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입시교실은 5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하여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 변화에 발맞춰 정보력을 키우고 대입전략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자녀와 대화하는 학부모되기'라는 주제로 입시정보에 취약한 지역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와의 공감 및 소통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뉴스브리핑, 시사이슈 따라잡기, 대학전공(공과대학) 살펴보기 등 자녀와 함께 대입제도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입시정보가 제공되었다.

또한 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 홍보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진청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공모 선정

완주군이 농촌진흥청의 지원 속에 전통농업을 계승해 소득화에 나선다.

완주군은 농촌진흥청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0년부터 2년간 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시범사업은 농경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경문화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소득연계, 지역브랜드 가치증진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체가락민요와 자연순환식 전통농법 전수계획이 농업활동과 관련된 전통지식, 농업문화 등 다양한 농촌 활력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비는 년차별 2억원씩 지원되며 1년차에는 농경문화자원 발굴·자료화, 활용 프로그램 개발, 교육,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2년차에는 농경문화 체험 연계 콘텐츠 확충, 프로그램 세분화, 전시·판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완주군에는 용진 두억마을이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선 전통혼례, 과거시험, 지체가락민요 공연 등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마을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협업체계를 구축, 기존 체험마을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벽골제서 새로운 즐거움을

김제시, 제21회 지평선축제 10월 6일까지 김제 벽골제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5개 분야 68개 프로그램 준비



제 21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글로벌 벼 수확 체험' 등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들녘의 비경 '지평선'을 배경으로 농경문화의 산실 김제 벽골제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Over the Horizon~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5개 분야 68개 프로그램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즐거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러 모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다. 축제의 상징과도 같은 벽골제 쌍룡을 배경으로 의전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중심형 개막식으로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린 축제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년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인 만큼 아시안데이, 러시아데이를 운영하여 그동안 축제

장을 찾은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평선축제를 찾아온 국내 관광객에게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지평선 글로벌 쿠킹클래스', '지평선 쌀강정 세계지도 만들기', '글로벌 벼 수확체험' 등 외국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또한 김제지평선축제 하면 빠질 수 없는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중년기원 입식줄다리기', '벽골제 쌍룡 햇볼 퍼레이드' 등 3대 킬러콘텐츠는 대동

성을 가미하여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고의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지평선 가을 하늘을 수놓아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며 벽골제를 밝히는 달빛 미러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지평선의 밤을 선물하고 벽골제 소원 한지등, 희망 LED풍선 날리기 등 야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산업진흥 유공 산업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김제시는 지난 25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된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산업진흥 유공 표창은 지역산업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제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백구면 부용리 일원에 특장차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약 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장차 전문단지 내에 전국 단 2개소(경기도 화성시, 전북 김제시)뿐인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를 유치하여 특장차 기업의 운송비용을 연간 20억원 이상 절감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절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특장산업을 김제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중이며, 특장차의 생산부터 관련 연구,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특장기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성장세인 특장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19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8억원 확보

김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국비 46억원을 포함한 보조금 총액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광주, 부산, 세종, 대구 총 9개 광역 18개시의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이행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김제시는 특장차를 생산하는 (쥬진우에스엘씨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쥬일강 2개사의 투자에 대하여 상정하였다.

2019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의결된 국비는 총 406억으로 이중 김제시는 46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쥬진우에스엘씨는 익산에서 무인방수과파차 등 특장차를 생산하는 업체로 전국 최초의 특장차 전문단지인

백구농공단지에 65억원을 투자하여 40평을 고용할 계획이다.

특히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는 특장차 업종만 입주가능하여 업체간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자기인증센터(김제분소)가 있어 인증검사 관련 경비절감과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김제시는 이미 '2018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확보 전국 최고'라는 타이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올 하반기 지자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에 투자를 결정해준 만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대표 무궁화 명소 '완주군' 선정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명소 전국공모전시 최우수상 수상

완주군이 대한민국 대표 무궁화 명소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산림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완주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각 시·도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응모한 1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산림청, 무궁화전문가가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전국에서 3곳을 선정했으며, 심사항목 기준은 생물환경 적합성, 규모성, 시민들의 접근성, 사후관리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완주군은 최고점을 맞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완주군은 나라꽃 무궁화의 선양 및 홍보를 위해 무궁화 100리길 조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완주군은 용진읍에서 화산면에 이르는 18km의 구간(국도17번)에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식재했다.

2017년까지 8년에 걸쳐 용진읍에서 화산면에 이르는 18km의 구간(국도17번)에 다양한 무궁화 품종 1만5000 본을 식재했다.

무궁화의 관리를 위해 매년 병충해 방제, 수형관리, 풀베기작업,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수상에 따라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과 2020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5000만원, 명소 선정 안내판 제작·지원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도시민 귀농·귀촌 상담 순회홍보

완주군이 전국의 예비 귀농·귀촌층 인들에게 완주를 적극 홍보했다.

완주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귀농·귀촌 상담을 실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SETEC에서 첫 상담홍보전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이번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10월에는 서울시청을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를 맞은 상담홍보전에서는 도시민 유치 상담뿐만 아니라, 선배 귀농인들이 전하는 농촌생활의 다양한 노하우가 담긴 상담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라북도 상담홍보전은 기존 박람회와 달리, 보여주기식 부스 꾸미기, 정책홍보 위주 행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농·귀촌 1:1 전문상담, 지자체별 우수정책, 거주시설, 귀농귀촌 종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시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전라북도를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푸르밀 NK프로젝트 N·1 advertisement featuring a woman holding a bottle and text about agricultural research and health benefits.